

HMM 재매각… 포스코·동원, 재무부담에 ‘인수전 장기화’ 전망

산은, 지분가치 재산정 완료

내달 최종평가 후 매각절차 본격화
본사 부산 이전 문제로 시간소요 예상

포스코, 투자부담으로 자금확보 난항
동원그룹, 현금성 자산 부족에 차질

한국산업은행이 내달 말 HMM 지분 가치 재산정 최종보고서를 받고 본격적인 재매각 절차에 돌입한다. 유력 인수 후보인 포스코는 재무 건전성 부담을, 동원은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안고 있어 인수전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HMM 지분 가치 재산정을 위해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정밀 실사를 거쳐 2월 말 최종 평가 결과를 받을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HMM의 보통주 3억3413만3427주(지분율 35.4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앞서 산업은행은 2016년 해운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HMM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사관리에 나섰다. 당시 최대주주였던 현대그룹이 경영권을 내려놓으면서 산업은행은 해양



HMM 컨테이너선.

/HMM

진흥공사와 함께 출자전환과 영구채 전환사채(CB) 등을 통해 지분을 확보했다.

산업은행은 HMM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에 글로벌 물류 대란과 해운임 급등으로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하자 지난 2023년 매각에 나섰다.

당시 인수후보는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과 동원그룹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인수에 성공했다. 그러나 해운업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와 인수 후보들의

재무 부담이 맞물리면서 적정 가격을 제시한 원매자를 찾지 못했고, 매각은 성사되지 않았다.

◆ 포스코·동원 ‘셈법 복잡’

산업은행은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HMM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준 HMM의 시가총액은 19조 3835억원에 이른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의 합계 지분율은 70.5%다. 각각 35.42%, 35.08%를 보유하고 있다. 인수자가 부담해야 할 지분인수 금액과 리스

크가 부담이다. 산업은행 지분만 판다해도 시가로 7조원에 달한다.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감안하면 10조원 가까운 금액이 될 수 있다.

인수 유력 후보로는 포스코그룹과 동원그룹이 거론된다.

포스코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7조 1688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 자금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현재 포스코는 본업인 2차전지 소재와 수소 환원 제철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2030년까지 총 121조원 투자를 공식화한 상태다. 10조원 가량의 자금이 소요되는 HMM 인수는 재무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동원그룹은 김재철 명예회장의 특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적극적인 인수 의지를 드러냈지만 자금 조달 능력이 걸림돌이다. 지난 3분기 기준 동원그룹이 사실상 현금보유 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4934억원, 단기금융예치금 2428억원 등 총 7362억원이다. 이를 포함한 당좌자산을 기준으로 보면 유동성은 2조원대까지 확대될 수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대규모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다.

◆ 부산 이전 변수에 시간 소요

시장에서는 매각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관측한다.

앞서 전재수 전 해수부장관은 지난해 7월 임명되자마자 HMM과 산하기관, 해사법원, 동남투자공사 등의 부산이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말 선제적으로 부산 이전을 마쳤다.

전재수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HMM 육상노조 간부들을 직접 만나 당위성을 설득했다.

HMM 부산 이전이 국정과제여서 부처 차원의 현안이긴 하지만, 컨트롤타워 가버어 있는 상황에서 이전 방식이나 발표 일정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HMM 지배구조 개편과 본사 부산 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연기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HMM 내부의 반발도 부산이전 전에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며 “결국 매각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금값 4600달러 돌파… 이란 사태 등 불확실성에 ‘고공행진’

〈현지시간 12일·온스당〉

금 현물 가격 2% 가까이 치솟아
트럼프 그린란드 합병 의지 재확인
파월 소송, 美연준 독립성 우려 키워
이란 시위, 미국 개입 가능성에 급등

금값이 하루 만에 100달러 넘게 오르며 급등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해왔다. 여기에 미 연방검찰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연준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도 금값을 끌어 올렸다.

13일 뉴욕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거래된 2월 인도물 금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31.1g)당 4614.70달러다. 직전 거래일보다 113.80달러(2.53%)달러 급등했고, 금값이 작년 12월 말 이후 처음으로 4500달러를 넘긴지 하루 만에 4600달러를 돌파해 사상



이란 사태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값이 치솟고 있다.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 전시 중인 골드 바. /뉴시스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값은 올해 들어만 온스당 273.60달러(6.3%) 상승했다.

최근 금 가격이 급등한 것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수 천 명의 사상자를 내며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군사적 개입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어서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작년 12월 28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에서 물가 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으며 시작됐다.

시위는 이란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했고, 이란의 독재자 알리 하메네이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로 확대됐다. 이란 당국은 이달 초부터 실탄을 사용한 강경진압을 개시했고, 인터넷을 차단한 가운데 시위대 사망자는 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이란 정권이 자국민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미국이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12일에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금수조치에 돌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다양한 대응 옵션을 브리핑 받을 것이며, 사이버 공격과 군사적 개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안보’를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합병 요구도 불확실성을 키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국가안보 최우선 과제로 ‘그린란드 확보’를 공식화했다. 협상 수단으로는 ‘매

입’과 ‘군사 개입’ 두가지 카드를 제시했다. 그린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일원인 덴마크의 영토인 만큼, 나토의 존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그린란드의 영유권을 놓고 긴장감이 고조하는 가운데 지난 12일(현지시간)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미국 합병 요구는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고, 나토 내에서 방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미국의 합병 요구를 거절했다. 같은 날 랜디 파월 미 공화당 의원은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 연방 검찰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강제 조사에 돌입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금값을 끌어 올렸다.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긴급성명을 통해 “지난 9일 미 법무부로부터 연준이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배심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대배심 소환에 불응하면 ‘법정 모독죄’로 수감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 직후부터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작년 여름에는 연준 본관 개·보수를 위한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됐으며,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를 압박했다. 이번 강제 수사 또한 해당 공사와 관련해 파월 의장이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어, 금 가격의 강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금융회사 소시에테 제네랄의 마이클 헤이그 원자재 연구 책임자는 “(안전자산 수요에 따라) 높은 불확실성은 금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매주 또 다른 불확실성의 영역이 추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K-제약사, 약가인하 압박 속 ‘코프로모션 러시’

〈공동판매〉

삼일제약, 대만 포모사와 독점 계약
동화약품, 일본 카켄 제약과 협력
한미약품, 한독테바와 아조비 유통

국내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가인하 압박 속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코프로모션(공동판매)을 확대하고 있다. 단기 수익성 방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수입의약품 의존도가 높아지며 결국 약품비 부담은 커지고 국내 기업들의 자생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견 제약사 삼일제약은 대만 제약사 포모사의 안과질환 개량신약 ‘APP13007’에 대한 국내 제조, 홍보, 유통 및 판매를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

APP13007은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의 나노현탁액으로 안과 수술 후 통증 및 염증 완화에 쓰인다. 특히 백내장, 녹내장 등 수술 환자에 처방되고 있어 국내 시장 규모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동화약품은 일본 카켄 제약이 개발한 거드랑이 다한증 치료제 ‘에크라겔’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 거드랑이 다한증 치료제가 전문의약품으로 발매되는 것은 에크라겔이 첫 사례로, 동화약품이 국내 독점 공급을 맡는다.

대원제약은 셀트리온제약과 고혈압 치료제 ‘이달비정’, ‘이달비클로정’, ‘이달디핀정’ 등 3종에 대한 공동 판매 계약을 맺어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이달비정’, ‘이달비클로정’ 등은 셀트리온이 일본 다케다 제약에서 인수한 후 생산 내재화를 이뤄낸 제품이다.

대형 제약사 가운데선 한미약품이 오

리지널 의약품을 지속 도입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한독테바와 편두통 예방 치료제 ‘아조비 프리필드시린지주’와 ‘아조비 오토인젝터주’를 국내에 유통 및 판매하는 업무협약을 맺어, 이달부터 유통 및 판촉 활동에 돌입했다. 올해부터 패링제약의 야간노·야노증 치료제 ‘미니링정’과 녹더나실하정’에 대한 영업·마케팅 권한도 확보했다. 미니링과 녹더나는 해당 질환 시장에서 현재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제약사들의 움직임은 정부의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를 위해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40%대로 낮추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하반기부터 제네릭 의약품의 매출 타격이 예고되면서, 수입 의약품 코프로모션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실제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한 이슈 보고서 ‘2012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약가인하 노출 기업의 코프로모션 매출액 비중은 2012년 약 3.5%p 증가한 후 2019년까지 2.2~3.8%p의 범위에서 증가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청하 기자 mlee236@